

# 금 등잔대 사이에 서신 사람의 아들 ✨

---

## I. 서론

요한계시록 1:1-20은 책 전체를 여는 서문이자 해석의 열쇠입니다. 본문은 “누가 말씀하시는가(그리스도), 무엇을 보여 주시는가(교회와 재림),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(읽고·듣고·지키기)”를 한 절씩 풀어 줍니다. 아래 강해는 각 절마다 요지 → 원어·텍스트 → 그리스도론 → 계시록 연결(전개/반복) → 적용 순으로 제시합니다.

---

## II. 문맥 배경 🧭

- 기록자: 사도 요한(말년, 밧모 섬 유배). (마 4:18-22 → 요 21: 22-23)
  - 수신자: 소아시아의 일곱 실제 교회(에베소·서머나·버가모·두아디라·사데·필라델피아·라오디게아). 7= 총만·대표성. 첫 사랑(구원)으로 시작하여 미지근함(혼합, 세상과 동화, 배교)의 교회사의 요약
  - 형식: 예언+서신+묵시(환상과 상징)의 결합. 보여 주심 → 기록 → 선포.
  - 전개 힌지: “성령 안에”(1:10; 4:2; 17:3; 21:10) 네 지점이 구조적 분할선 역할.(시작 → 영광 → 심판 → 새창조)
- 

## III. 원어 핵심 ✍️

- ἀποκάλυψις(*apokalypsis*, Revelation)= 가림을 벗김 → 그리스도의 드러남.
  - μαρτυρία(*martyria*, testimony)= 법정 증언 → 삼중 증언의 확증.
  - σημαίνω(*sēmainō*, signify)= 표징들로 알리다 → 상징 해석의 정당성 근거.
  - Κύριος ἡμέρα(Lord's day)= 문맥상 여호와와 날(종말적 시현) 해석 가능.
  - χαλκολίβανον(fine brass)= 불로 단련된 놋(심판 상징).
- 

## IV. 성경 문법·텍스트 주의 🧩

- 예언적 시제: *cometh*(1:7), *is at hand*(1:3)= 임박성과 확실성을 표현하는 예언법.
- KJB 보존 말씀:
  - 1:5 “**washed us**”(피로 씻으심)
  - 1:8 “**the beginning and the ending**”

- 1:11 “I am Alpha and Omega, the first and the last”  
→ 그리스도의 신성·구속을 선명히 보존.

## V. 절별 강의 개요 (KJB+흠정역) 🔍

### v.1

- 요지: 계시의 근원과 전달—하나님 → 예수 그리스도 → 천사 → 요한 → 종들. 목적은 “곧 있을 일들”을 표징들로 알리시는 것.
- 원어·텍스트: ἀποκάλυψις(*apokalypsis*, **Revelation**)= 가림을 벗김. ἐν τάχει(**shortly**)= 예언적 임박성(already but not yet). ἐσήμανεν(*sēmainō*, **signified**)= 상징(**signs**)을 통해 알리심.
- 그리스도론: 예수는 계시의 전달자이자 내용 자체. 아들이 아버지를 설명(요 1:18)하듯, 계시의 중심은 인물(예수)입니다.
- 계시록 연결: “천사를 보내어 보이심”은 22:6, 16에서 수미쌍관. “곧”이라는 임박성은 22:7, 12, 20에서 반복 강화. “표징”은 12–13장 상징 전개(여인, 용, 짐승)의 해석(*hermeneutic*)의 기초.
- 적용: 성경 읽기의 출발점은 위로부터 오는 계시(구약: 성막의 금등잔대, 신약: 성령의 조명). 우리는 사건 해설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증언자.

### v.2

- 요지: 요한의 삼중 증언—하나님의 말씀, 예수의 증언, 본 모든 것.
- 원어·텍스트: μαρτυρία(*martyria*, **testimony**)= 법정 용어. 두세 증인(신 19:15)의 원리가 계시의 신빙성을 뒷받침.
- 그리스도론: 말씀–증언–시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. 예수는 신실한 증인(v.5).
- 계시록 연결: “예수의 증언”은 예언의 영(19:10)으로 재정의. “증언”은 12:11(증언의 말)과 20:4(예수의 증언 때문에 순교)에서 재등장.
- 적용: 설교·전도(그리스도인의 삶)는 본 대로, 들은 대로 말하는 일(요 19:35).

### v.3

- 요지: 첫 복(1/7)—읽는 자(단수), 듣고 지키는 자들(복수). 때가 가까움.
- 원어·텍스트: ἀναγινώσκων(**readeth**, 단수)= 대표 낭독자. ἀκούοντες/τηροῦντες(복수)= 회중의 순종. 때(*kairos*)=“달력의 길이”가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 시점. “가까움”(ἐγγύς)= 긴장된 현재성.
- 그리스도론: 복은 그리스도를 듣고 지키는 공동체 위에 있습니다(눅 11:28).

- 계시록 연결: “복 있는 자”는 14:13; 16:15; 19:9; 20:6; 22:7; 22:14까지 총 7복으로 이어지는 서사 레일.
  - 적용: 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복이 되는 책, 복을 주는 책,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책.
- 

## v.4

- 요지: 수신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. 인사는 여호와와 자기 계시와 일곱 영(성령의 충만).
  - 원어·텍스트: “이제도 계시고, 전에도 계셨고, 장차 오실 이”= 출 3:14의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신약적으로 재진술. ἑπτὰ πνεύματα(**seven Spirits**)= 충만의 성령(사 11:2).
  - 그리스도론: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의 흐름에서 온다.
  - 계시록 연결: “일곱 교회”는 2–3장의 편지로 전개. “일곱 영”은 3:1; 4:5; 5:6에서 교회-왕좌를 잇는 조명으로 반복.
  - 적용: 지역 교회는 보편 교회를 대표(완전수 7).
- 

## v.5

- 요지: 예수의 삼중 칭호—신실한 증인, 죽은 자들의 처음 난 자, 땅의 왕들의 통치자. 그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심(KJB **washed us**).
  - 원어·텍스트: **λούσαντι**(washed)= 피로 정결(레 17:11; 히 9:14). 일부 비평본 “loosed”와 구별.
  - 그리스도론: 대제사장적 속죄와 우주적 통치가 동시에 선포.
  - 계시록 연결: “피”는 5:9–10(피로 사심), 7:14(어린양의 피에 씻음)로 확장. “통치”는 17:14; 19:16의 만왕의 왕으로 완결.
  - 적용: 속죄는 감정이 아닌 사실—객관적 역사 사건을 통한 선포.
- 

## v.6

- 요지: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 곧 그의 아버지께 영광.
  - 원어·텍스트: “**his Father**” 보존(KJB)= 성자와 성부의 구별·친교 명확.
  - 그리스도론: 창 1:28의 통치와 중보(출 19:6)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.
  - 계시록 연결: 5:10 “우리가 땅에서 통치”로 미래 통치가 구체화. 20:6에는 천년 동안 통치로 연결.
  - 적용: 오늘 왕-제사장으로 서는 작은 실천(가정 중보, 직장 청지기)의 태도.
- 

## v.7

- 요지: “보라,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.” 모든 눈이 보고,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본다.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.
  - 원어·텍스트: ἔρχεται(**cometh**, 현재)= 예언적 현재.
  - 그리스도론: 단 7:13의 사람의 아들이 영광 구름과 함께 오시는 왕의 공식적 출현.
  - 계시록 연결: 6:15–17(진노의 큰 날), 14:14(구름 위의 사람의 아들), 19:11–16(가시적 재림)로 연속. 속 12:10 인용은 1:7에서 열고 12:10–12에서 회개/심판의 양면으로 확장.
  - 적용: 재림을 논쟁거리가 아니라 삶의 소망으로 품음. \*\*마라나타의 신앙
- 

## v.8

- 요지: “알파와 오메가, 시작과 끝마침, 전능자.”
  - 원어·텍스트: KJB의 “**the beginning and the ending**” 보존= 영원·주권의 강조.(개역개정, NIV - 없음)
  - 그리스도론: 예수의 여호와적 자기 동일화—사 44:6과 등치.
  - 계시록 연결: 21:6; 22:13의 동일 선언이 서문–결문 구조를 형성.
  - 적용: 성도의 안전은 주권자의 이름 안에 있음.(시 20:7)
- 

## v.9

- 요지: 요한은 환난–왕국–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하는 형제. 밋모에 유배된 이유는 말씀과 예수의 증언.(1:2. '자기가 본 모든 것' 언급 없음)
  - 원어·텍스트: συγκαινωνός(**partaker**)= 함께 나눔. 고난은 왕국의 대체재가 아니라 통로.
  - 그리스도론: 왕국은 이미 임했고, 아직 완성되지 않음.
  - 계시록 연결: “말씀과 증언 때문에”는 6:9; 20:4에서 순교의 이유로 재현. “환난”은 2:9(서머나)와 7:14(큰 환난)로 이어짐.
  - 적용: 고난은 왕국 군사 훈련으로 장교가 되는 수업(행 14:22). 매일 십자가를 지는 연습(눅 9:23)
- 

## v.10

- 요지: “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...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”을 들음.
- 원어·텍스트: ἐγενόμην ἐν πνεύματι(**I was in the Spirit**)= 계시의 운반 상태. “주의 날”은 (1) 주일 이해와 (2) 여호와의 날(종말) 이해가 가능—문맥상 종말적 시현의 전조.
- 그리스도론: 나팔 소리같은 큰 음성-왕의 소집(출 19:16)과 동일한 위엄.
- 계시록 연결: “성령 안에”는 4:2; 17:3; 21:10의 네 개 전환점을 이루는 서사적 힌지. “큰 음성”은 4–5장의 왕좌 장면으로 직결.

- 적용: 예배는 성령 안에서 왕의 음성을 듣는 훈련.
- 

## v.11

- 요지: “나는 알파와 오메가, 처음과 마지막... 보는 것을 책에 쓰라—일곱 교회에 보내라.”
  - 원어·텍스트: KJB에 알파·오메가 선언이 본문 내 보존되어 화자 권위를 강화.(개역개정, NIV - 없음)
  - 그리스도론: 계시-기록-교회 송달은 왕의 명령.
  - 계시록 연결: “쓰라”는 동사가 2-3장에서 각 교회 서신의 머리말로 반복. 기록 개시는 22:18-19의 경고로 종결.
  - 적용: 보여 주신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교회에서 읽고, 듣고, 지키는 복을 누려야 함.
- 

## v.12

- 요지: “돌아보아” 보니 일곱 금등잔대.
  - 원어·텍스트: ἐπέστρεψα(I turned)= 방향 전환 뒤 시야 열림의 상징.
  - 그리스도론: 교회 한가운데를 거니시는 주(마 1:23. 임마누엘).
  - 계시록 연결: 등잔대는 2:1에서 “가운데를 거니시는” 그리스도와 연결, 2:5에서는 등잔대 옮김의 경고로 이어짐.
  - 적용: 교회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등대.
- 

## v.13

- 요지: 등잔대들 사이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—발까지 내려온 옷(ποδήρης), 가슴의 금 띠.
  - 원어·텍스트: ποδήρης(garment down to the foot)= 대제사장 이미지(출 28). “사람의 아들”= 단 7:13. 가슴의 금 띠는 사역의 고귀함/완결성.
  - 그리스도론: 왕-대제사장이 교회 한가운데 임재.
  - 계시록 연결: “사람의 아들”은 14:14의 추수-심판 주권으로 재등장.
  - 적용: 삶의 거룩은 그분의 임재 중심성에서 시작.
- 

## v.14

- 요지: 머리와 털이 눈같이 희고, 눈은 불꽃 같음.
- 원어·텍스트: 단 7:9의 “옛적부터 계신 분”과 속성 공유—본질 동일성의 암시.

- 그리스도론: 거룩·정결·전지—눈의 불꽃은 투시/심판.
  - 계시록 연결: “불꽃 같은 눈”은 2:18(두아디라), 19:12(재림 주)에서 반복, 교회 판단과 세상 심판 모두에 적용.
  - 적용: 숨길 것 없는 회개가 온전한 기도임을 가르침(히 4:13).
- 

## v.15

- 요지: 발은 불에 단련된 빛난 낫(χαλκολίβανον), 음성은 많은 물 소리.
  - 원어·텍스트: 낫= 심판의 금속(번제단). “많은 물 소리”= 겔 43:2의 여호와와 음성.
  - 그리스도론: 심판의 견고함과 권위의 장엄.
  - 계시록 연결: “많은 물 소리”는 14:2; 19:6(큰 무리의 소리)로 확대, 하늘 예배의 음향적 스케일을 예고. (모든 민족들을 향한 선포)
  - 적용: 소음의 시대에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듣는 훈련.(칵테일 파티 이펙트)
- 

## v.16

- 요지: 오른손에 일곱 별,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, 얼굴은 해처럼 빛남.
  - 원어·텍스트: ῥομφαία δίστομος(**sharp twoedged sword**)= 말씀의 사법권(히 4:12; 엡 6:17), 긍휼과 심판의 양날
  - 그리스도론: 주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심판하심. 별은 교회의 천사들(v.20).
  - 계시록 연결: “검”은 2:12, 16(버가모)에서 책망/회개의 도구로, “오른손의 별”은 2:1에서 보호/권위로 이어짐. “해 같은 얼굴”은 10:1의 천사 묘사와 대비를 이룸(그리스도의 독보성).
  - 적용: 사역의 권위는 오른손(주권)과 입의 검(말씀)에서 나옴.
- 

## v.17

- 요지: 요한이 죽은 자 같이 엎드림. 주께서 오른손을 얹어 “두려워하지 말라—나는 처음과 마지막”.
  - 원어·텍스트: 이사야적 여호와 선언(사 44:6)과 동일한 자기 계시.
  - 그리스도론: 영광의 임재는 우리를 엎드리게,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일으킨다.
  - 계시록 연결: “처음과 마지막”은 2:8(서머나 편지)로 이어져 박해 교회의 위로가 됨.
  - 적용: 예배는 경외와 위로가 공존.
-

## v.18

- 요지: “살아 있는 자... 전에 죽었었노라...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노라.” 지옥(ἄδης, KJB hell)과 사망의 열쇠 소유.
  - 원어·텍스트: “열쇠”= 절대 관할권(사 22:22).
  - 그리스도론: 부활 주권자—죽음과 지옥을 개폐하시는 분.
  - 계시록 연결: 3:7의 다윗의 열쇠(그리스도), 20:1의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(천사)와 대비—열쇠들의 위계를 보여 줌.
  - 적용: 죽음의 공포는 열쇠의 주 앞에서 무력함을 깨닫는 평안.
- 

## v.19

- 요지: “본 것(과거)—있는 것들(현재)—이후에 있을 것들(미래)을 기록하라.” 책의 공인된 개요.
  - 원어·텍스트: μετὰ ταῦτα(hereafter/그 뒤에)= 구조 전환의 힌지(4:1).
  - 그리스도론: 역사·현재·미래의 주권자.
  - 계시록 연결: 1장(본 것) → 2–3장(있는 것들) → 4–22장(이후)로 책 전체의 지도 제시.
  - 적용: 본문을 이 개요 레일 위에서 읽을 때 혼동이 줄어듦.
- 

## v.20

- 요지: 신비의 해석—별=일곱 교회의 천사들, 등잔대=일곱 교회.
  - 원어·텍스트: ἄγγελος(angel/messenger)= 하늘 존재로 해석할 수 있으나(상징 일관성), 서신은 실제 지역 교회에 낭독됨(이중 초점).
  - 그리스도론: 오른손의 별= 주의 보호와 권한 부여(마 18:10). 등잔대는 그분의 임재로 밝아짐.
  - 계시록 연결: 2–3장의 모든 편지 머리말이 “그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”로 시작—1:20이 전체 편지 해석 열쇠. 2:5의 “등잔대를 옮기리라”는 경고로 성경적 적용이 구체화.
  - 적용: 교회의 빛은 임재와 말씀으로 유지.
- 

## VI. 그리스도론적 관통선 ✨

1. 계시의 주체·내용: 예수 그리스도(1–3절) → 4–5장의 왕좌와 어린양.
2. 삼위의 인사: 아버지–성령의 일곱 영–아들(4–5절).
3. 왕-제사장 공동체: 피로 씻김과 신분(5–6절) → 5:9–10; 20:6.
4. 가시적 재림: 구름·만민의 목격(7절) → 14:14; 19:11–16.

5. 알파·오메가: 영원·전능(8절) → 21:6; 22:13.
  6. 교회 한가운데 임재(임마누엘): 금등잔대 사이의 사람의 아들(12–13절) → 2–3장.
  7. 거룩·심판·말씀: 눈·발·검(14–16절) → 2:12, 18; 19:15.
  8. 두려움의 극복: “두려워 말라”(17–18절).
  9. 책의 개요: 과거–현재–미래(19–20절) → 전권 구조.
- 

## VII. 성경 간 연결(핵심 링크)

단 7:9, 13–14 ↔ 계 1:13–14 | 출 25:31–40 ↔ 계 1:12, 20 | 속 12:10; 마 24:30; 행 1:9–11 ↔ 계 1:7 | 히 4:12; 엡 6:17 ↔ 계 1:16 | 사 11:2 ↔ 계 1:4 | 벧전 2:9 ↔ 계 1:6

---

## VIII. 참고구절

출 25:31–40 → 단 7:13–14 → 속 12:10 → 마 24:30 → 행 1:9–11 → 히 4:12

---

## XIII. 믿음의 예(구체 사례)

- 존 번연(John Bunyan, A.D. 1628–1688):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거부하고 베드퍼드 감옥에서 ‘천로 역정’의 씨앗을 잉태. “환난–왕국–인내”(1:9)의 현대적 실례.
  - 폴리갑(Polycarp, A.D. 69–155/156): “그분은 여든여섯 해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.”—신실한 증언(1:5)과 두려움의 극복(1:17–18)의 표본.
- 

## XIV. 결론

1:1–20은 계시록 전체의 작은 우주입니다. 계시의 사슬로 그리스도를 보고(1–3), 삼위의 은혜와 피의 복음을 붙들며(4–6), 가시적 재림을 소망합니다(7–8). 고난–왕국–인내 속에서도(9) 성령 안에서 왕의 음성을 듣고(10–11), 금등잔대 사이의 왕-대제사장을 뵈옵습니다(12–16). 그분은 두려움을 거두고(17),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통치하십니다(18). 마지막으로 주신 개요(19–20)를 붙들며 계시록을 읽고·듣고·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(1:3).